



댄스 리터러시 논의의 맥락 및 과제*

민현주**

Rethinking of Issues on Dance Literacy

Min, Hyun-Joo

요약

이 연구는 국내에서 2010년 전후 이래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여 난점을 드러냄으로써 추가의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다수 논의들은 주로 상호 연관된 의미, 논리 구조의 세 가지 논변에 근거한다. 그에 따르면 댄스 리터러시는 리터러시에 관한 다양화의 필요성을 반영하면서 대중화 즉 실생활 적용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문화예술로서 무용예술 교육의 근거이자 지향으로서 무용에 관한 총체적 자질 혹은 무용소양의 함양을 통해 구현된다. 세 가지 논변으로 뒷받침되는 댄스 리터러시 교육의 이론적, 실천적 정당화는 리터러시의 일반적 개념화에 비추어 볼 때 다음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물음을 남긴다: 1) 삶의 측면이나 차원의 다양화에 부합하는 것인가, 2) 무용예술을 실생활에 밀착시키는 데 기여하는가, 3) 전반적인 생활기술, 학습능력에 통합되는가?

※ 주제어 : 댄스 리터러시, 다양화, 생활화, 통합성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additional tasks by critically reviewing research papers on dance literacy. This research has been steadily expanding in Korea since approximately 2010. Discussions on dance literacy are mainly based on three arguments of interrelated meaning and logical structure. According to them, dance literacy education reflects the need for diversification of literacy and guarantees popularization, which is, applicability in real life, and is implemented through the cultivation of overall qualities on dance (dance literac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justification of dance literacy education supported by three arguments leaves the following fundamental and core questions in light of the general conceptualizations of literacy: 1) Is it consistent with the diversification of aspects or dimensions of life, 2) does it contribute to bringing dance art into close contact with real life, 3) is it integrated into overall life skills and learning ability?

※ Key words : dance literacy, diversification, popularization (dance for all), integration

* 이 논문은 2020년도 강릉원주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단독저자, 강릉원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hjmin@gwnu.ac.kr /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Dept. of Physical Education, Professor

I. 서론

2010년 전후 이래 댄스 리터러시(dance literacy) 즉 댄스와 리터러시를 연결시키는 국내의 논의들이 꾸준하다(임수진·문영, 2021; 김유경, 2020; 김현정, 2019; 정재임, 2019; 천혜미·문영, 2019; 신상미, 2017; 김유진, 2016; 임수진, 2015; 채향순, 2015; 홍애령, 2015; 서예원·조은숙·문영·김윤진, 2013; 최의창, 2011).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 그리고 관련 연구와 실천의 방향 및 과제 등에 관한 논의를 비롯하여 특히 무용교육과 관련하여 연구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의 실질적 계기는 2005년 문화예술진흥법, 2010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정, 2011년 무용교육표준 등 법규의 제정과 그에 따른 문화예술 교육의 정책의 마련일 것이다. 즉 상기 법규, 정책의 토대 위에서 댄스 리터러시 혹은 무용소양이 문화예술의 학교 및 사회 교육에서 무용예술의 목표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은 그에 관한 연구 논의를 촉진,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 양상은 댄스 리터러시의 필요나 개념을 정당화하는 앞선 연구 논의를 재생하고 누적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연구 논의들은 몇 가지의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의구심은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에 관한 논의에서 촉발한다. 즉 그 논의들은 댄스 리터러시를 댄스에 관한 혹은 무용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태도, 기능, 지식 등의 자질 및 능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흔히 함축하여 무용 소양(素養)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념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자는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에 관한 연구 논의를 살피면서 두 가지의 소박한 의문점을 떠올렸다.

첫째, 댄스 리터러시가 무용소양, 즉 무용에 관한 바탕(素)이 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간 무용에 관한 연구 논의 속에서 흔하게 제시되어 온 무용 능력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만일 둘 간의 차이가 확연하지 않다면 굳이 오래전부터 문해(文解), 문식(文識)의 능력으로 번역되어 온 바처럼 독해(reading), 작문(writing), 산술(arithmetic)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적 학습능력, 기본적 생활기술을 의미하고 그래서 심미, 예술의 활동 영역과 밀착되어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붙이고자 하는가 하는 점이다.

위와 같은 맥락과 의문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국내에서 전개되어 온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 논의들을 검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과제에 집중했다. 첫째,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국내 연구 논의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댄스 리터러시의 이론적, 실천적 정당화를 위한 논변들과 논리 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했다. 둘째, 20세기 전환기 이래 전개되어 온 리터러시의 논의 및 변화 양상을 살피고 이를 근거로 하여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논변의 정합성을 확인해 보고자 했다.

II. 댄스 리터러시의 논의 및 논변

우리나라에서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고 전개되는 양상을 살핌에 있어서 먼저 그 양상에는 학문 외적 동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2011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하여 서예원 외 3인이 연구 보고한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_무용」 그리고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10년 제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05년 제정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약칭 문화예술교육법)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논의의 대두는 위의 표준 연구에서 “댄스 리터러시(Dance Literacy)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요약, p. iii)고 표명하고 관련 연구 논의들이 2010년 전후에 가시화되었으며 이후의 연구논의들 다수에서 무용교육표준을 계기로 언급하고 있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최의창, 2011; 서예원·조은숙·문영·김윤진, 2013; 임수진, 2015; 채향순, 2015; 김유진, 2016; 신상미, 2017; 김현정, 2019; 정재임, 2019; 천혜미·문영,

2019; 김유경, 2020; 임수진·문영, 2021).

물론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 논의가 학문 외적 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 반론도 가능하겠다. 「무용교육표준」이 댄스 리터러시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으나 이 표준의 개발은 국내외 무용학자들의 선행 연구 논의가 바탕을 이루고 있기에 본 논자의 견해에 대한 반론은 근거가 있다. 더욱이 정책 개발의 착수, 정립, 실행 등의 과정에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을 비롯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이 누적해온 연구와 식견을 반영하고 또한 댄스 리터러시를 표제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것과 무관할 수 없는 무용의 텍스트나 콘텍스트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 꾸준했음을 고려하면 본 논자의 견해에 대해 과도한 단순화라는 식의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 외적 동력을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논의가 우리의 무용(교육) 현실을 충실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문제나 과제를 도출하고 그 해법을 탐색,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등장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그와 같은 우리 무용현실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리터러시를 강조하는 연구의 전개는 그 연구에 포함된 논제와 관점 등에서, 우리의 댄스 리터러시 연구들이 참조하고 있듯이, 선행의 외국 연구들이 보여주는 논제와 관점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참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내 무용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 논의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문화예술교육표준」이라는 정책적 동인에 힘입고 “교육학적 관점에서 댄스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임수진, 2015: 139)고 하는 Hong(2000) 그리고 Dils(2007a, 2007b)와 같은 국외 연구들에서 다루어 온 주제와 관점을 참조하여 형성되고 전개되어 왔다.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2011년 「무용교육표준」이래 최의창(2011), 서예원·조은숙·문영·김윤진(2013), 임수진(2015), 김현정(2019) 등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간뿐 아니라 내용에서 선후의 연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 논의들은 댄스 리터러시의 이론적, 현실적 정당성을 주장,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아래의 세 가지의 ‘정당화 논변’으로 집약시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다양화 논변’이다. 우리의 무용교육이 댄스 리터러시의 함양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댄스 리터러시의 요구 및 성립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 리터러시가 20세기 전반에서 (기초, 공통) 교육, (노동)경제, 정치 등의 영역에서 꾸준한 논제였던 것에 비하면 무용(교육) 영역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서야 무용과 리터러시를 밀착시켜야 한다고 더 나아가 결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댄스 리터러시 논자들은 기초, 공통 교육의 중심에 자리하여 왔던 리터러시를 예술 분야인 무용과 연결시키는 논리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논리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 이를 논자가 ‘다양화 논변’으로 칭하는 것으로 그 실례를 다음에서 살펴볼 수 있다.

포스트모던적 문화예술관에 의해서 교육의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용어 중에 “리터러시”(literacy)가 있다. 리터러시는 단순한 수준에서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기능 또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문해력(文解力) 또는 문식성(文識性)이라고 번역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양한 맥락에서 유연성 있게 활용되고 있다. 문화적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 기능적 문해력, 비판적 문해력, 감정적 문해력 등등 기존에는 활용되지 않았던 문맥에서 새롭게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 문해력이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해당 분야 또는 대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종합적 이해력과 실행력”을 이야기한다(신동희, 2004; 이병민, 2005; 정해승, 2008). (최의창, 2011: 149).

위의 최의창(2011)의 연구처럼 리터러시 즉 문해력을 “해당 분야 또는 대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지니고 있

는 종합적 이해력과 실행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무용 분야 또는 대상에 적용하면 댄스 리터러시의 성립한다는 식의 논리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리터러시는 해당 분야 또는 대상에 적용한 ‘○○ 리터러시’가 성립하고 ○○에 어떤 분야 또는 대상을 넣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리터러시가 등장 즉 리터러시가 ‘다양화’하고 있으며, 이 추세에 따라 댄스 리터러시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다양화 논변’은 무용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소양(素養)으로 번역된 리터러시를 접목, 적용한 다수의 사례들을 종합하고 있는 아래의 임수진(2015)의 논의에서 보다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각 시대별로 리터러시의 개념과 의미가 변화하고 확장되고 있다. 현대의 리터러시는 지식을 얻고 사용하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능력으로 한 인간이 삶을 영위해나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의미한다(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정보원, 2006). 현대적 리터러시는 최근에 각 교육영역에서 분야별 특유의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목표로 제안되고 있다. 교육 분야별로 과학적 소양(신동희, 2002; 이명재, 2009), 수학적소양(주미경, 2002), 환경소양(박정해, 2008), 정보소양(곽승철·편도원, 2003), 시각적 소양(Burmark, 2002), 미술소양(황연주, 2001), 신체소양(Whitehead, 2001), 운동소양(최의창, 2011), 무용소양(서예원 외, 2013; 임수진, 2015; 최의창, 2011) 등이 제안되고 있다(표1 참조). 소양으로서의 무용은 무용실기와 이론의 이원화 실태와 무용의 비대중성이 지적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박순자, 2013; 박은희, 2010; 최의창, 2011). 이에 무용교육 콘텐츠의 확산과 방법론의 통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현주, 2009; 문영, 2010; 박미·강인숙, 2015). 이러한 현상은 이제 학교는 물론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에서 다양한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음을 시사해준다(임수진, 2015: 131).

이렇듯 무용 리터러시 혹은 무용소양의 요구 및 성립에 관한 정당성은 ‘분야 및 대상의 다양화’추세, 양상에 근거하는 논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리터러시는 읽기와 쓰기, 3Rs 등 문해력(文解力)으로 규정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해당 분야 및 대상에 관해 기초적이고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소양(素養)으로 수정하여 규정해야 하며, 근래에 과학·수학·환경·정보·시각적·미술·신체·운동 등에 관한 소양이 제안되고 있는 바처럼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 양상에 따라’ 무용에 관한 소양으로서 무용 리터러시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생활화 논변’이다. 앞에서 다루었듯이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국내의 연구 논의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정으로 축약할 수 있는 정책적 시도 노력이 결정적인 촉매,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 연구 논의에서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 성격 규정은 그 정책적 시도 노력과의 연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기까지 한 현실적 요구일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정,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 등에 따른 「무용교육표준」은 무용교육을 기존과 차별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 요구는 우선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나누고 있는바 무용예술교육은 두 영역에서의 무용교육을 아우르는 것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다수의 논의들은 기존의 무용교육을 전문예술인의 교육에 편중된 것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무용교육은 모든 사람을 위한 무용예술의 정립 및 확대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즉 무용예술을 ‘대중의 보편적 일상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댄스 리터러시의 대두가 정책적 동력에 바탕을 두고 있음은 아래와 같은 연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리터러시는 시대와 환경 그리고 교육 분야에 따라 그 의미가 재개념화되고 있다. 이에 각 분야에서는 소양 함양을 목표로 교육 분야로 다양한 개념의 새로운 리터러시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무용분야에서는

2000년 홍(Hong)에 의해 교육학적 관점에서 댄스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의 무용교육표준에서 “댄스 리터러시 계발”을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표로 제시한 이래 댄스 리터러시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임수진, 2013: 140-141).

댄스 리터러시 관련 연구 논자들은 학교무용예술교육과 사회무용예술교육을 아우르는, 소수 무용가를 위한 전문무용예술교육에서 벗어나 다수 대중들을 위한 문화무용예술교육의 지향 목표를 아우르는 개념으로써 댄스 리터러시를 주목한다. 그 논리 및 실천은 체육 분야에서 정책의 주조를 학교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확대 전환함으로써 진흥의 성과를 거두었던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생활체육을 ‘sports for all’이라고 했듯이 문화무용예술교육을 ‘dance for all’로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는 대중의 생활(양식)에 밀착된 개념인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은 대중과 밀착된 예술을 의미하며 문화예술로서의 무용에 관한 교육은 댄스 리터러시를 목표로 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전문적으로 무용수가 되고자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무용교육의 초점이 집중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이 예술교육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대두되면서, 전문가가 될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무용교육자들은 이 점을 진지하게 간파하고 무용교육의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다(최의창, 2011: 141).

이렇듯 댄스 리터러시의 성립 및 적용의 정당성은 무용예술의 ‘생활화’가 시대적, 사회적 요구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생활화 논변’은 리터러시를 ‘소양(素養)’으로 즉 ‘바탕이 되는 능력, 자질’로 번역, 표현하는 것으로 강화된다. ‘생활화 논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1) 문화예술로서의 무용예술교육은 소수의 전문인이 아니라 다수의 교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리터러시는 일반 교양인의 삶, 문화에서 요구되는 자질, 능력 즉 소양이다. 3) 따라서 새로운 무용예술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댄스 리터러시, 무용 소양은 일반 교양인의 삶에 밀착되는 즉 생활화를 지향하는 것이기에 정당성을 가진다.

셋째, ‘총체성 논변’이다. 관련 연구 논의에 따르면 댄스 리터러시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길러야 하는 ‘능력들의 총체, 즉 통합적 능력’이다. 댄스 리터러시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무용교육은 과거, 기존의 접근과 차별화된 것으로 규정한다. 즉 대다수 연구자들은 기존의 무용교육이 무용과 관련된 실행, 창작, 감상, 소통 등의 활동들을 부분적이고 분절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주조를 이루었다고 본다. 그러나 새로운 무용교육은 댄스 리터러시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데, 그것은 무용에 관한 총체적, 통합적 자질이자 능력이기에 기존의 무용교육과 차별성이 뚜렷하다는 논변을 펼치고 있다. 이 논변은 「무용교육표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댄스 리터러시는 무용의 전반을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통합능력을 의미한다. 즉 무용을 체험하고, 탐구하고,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 말하고, 쓰고, 보고, 읽는 종합적인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 무용교육표준의 목표인 것이다.

그러므로 댄스 리터러시는 다양한 춤 움직임 속의 상징과 의미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움직임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와 함께 무용 의미를 분석, 이해, 감상, 비판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11: 18).

댄스 리터러시의 특질을 통합성, 총체성으로 규정하는 또 다른 예로서 최의창(2011)의 논변은 보다 철저한

듯 보인다. 그는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다수의 국외 유력 연구자들의 견해를 고찰하면서 무용 리터러시가 무용과 관련된 제반의 (교육)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능력이며 동시에 그 능력들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라고 밝히고 있다.

Ann Dils, Brenda McCutcheon, Tina Hong 등이 소개하고 주장하는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에는 앞부분에서 다룬 무용교육의 기본 목적들이 충실히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행하기, 만들기, 음미하기의 주요 코너스톤들이 적절히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댄스 리터러시”는 이 같은 다양한 핵심 체험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배우는 이에게 갖추어졌을 때에 부르는 통합명칭이다(최의창, 2011: 152).

댄스 리터러시를 총체성의 견지에서 규정하는 논변은 댄스 리터러시가 자칫 리터러시의 고전적, 전통적 개념 정의에 얽매일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한다. 댄스 리터러시가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문해, 문식으로 변환되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댄스 리터러시는 문자, 그림 형태로 기록되는 무용보(舞踊譜)와 다름을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총체성 논변의 사례를 임수진(2015)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현대적 리터러시 개념인 교육학적 관점의 댄스 리터러시는 무용을 통해 길러지는 여러 자질 및 능력을 종합하여 하나의 용어로 부르는 것으로, 이때의 무용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렌즈가 된다. 즉 댄스 리터러시는 무용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과학적, 기능적 원리 및 지식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터득된 앎을 삶의 여러 상황에 반영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임수진, 2015: 133).

이렇듯 문화예술로서 무용예술의 교육에 관한 이론적 정립, 실천적 적용을 다루는 대다수의 연구 논의들은 댄스 리터러시를 무용을 통해 형성되는 통합적, 총체성 자질이자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댄스 리터러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엄밀하게 드러내는 과학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문화예술로서 무용예술교육을 표방하는 이론적, 실천적 노력들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목표로 삼는 댄스 리터러시는 교육적 목적 이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댄스 리터러시를 정당화하는 다양화, 생활화, 총체성 논변은 상호 연관된 의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무용과 관련된 총체적 자질, 능력인 댄스 리터러시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로서의 무용교육은 리터러시의 다양화 추세 및 요구를 반영하면서 무용의 대중적 생활화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Ⅲ. 댄스 리터러시 논변의 정합성

1. 리터러시의 상황과 맥락

리터러시의 개념 파악은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지만 20세기의 상황에 집중하면 1950년대 전후를 경계로 하여 문자독해(alphabetical literacy)에서 기초능력(functional literacy)으로 확대 전환되었다(<https://en.wikipedia.org/wiki/Literacy>; Christie & Misson, 1998: 9-10). 20세기 전반에 리터러시는 반대어인 일리터러시(illiteracy)가 문맹(文盲)으로 번역되는 바와 같이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다. 이 능력이 중요

한 이유는 문자의 독해 능력의 결여는 문자로 된 정보를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일상의 삶을 무난히 살 수 없게 되며 더 나아가 통상의 학습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즉 문자, 문장의 독해 능력은 생활의 기본 조건, 학습의 기초 조건의 부족, 부재를 의미하였다.

이렇듯 리터러시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생활 기술(life skills)이었다. 또한 문자의 독해와 함께 쓰기 즉 작문의 능력 그리고 기본적인 산술의 능력 또한 기초적인 생활 기술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독해, 작문, 산술의 능력이 부재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겪게 될 일상을 쉽게 그릴 수 있다.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서 채소를 사야 하는 문맹의 한 노인을 생각해 보자. 그는 어느 버스를 타야 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버스의 노선 정보는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에게 시장을 가는 버스를 묻는 방식으로 해결하게 된다. 시장에 도착하고 채소를 사고자 하지만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한다. 셈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지갑을 상인에게 주고 채소의 값과 같은 돈을 가져가도록 한다. 불안한 삶의 연속이다.

이렇듯 독해, 작문, 산술 혹은 읽기, 쓰기, 셈하기의 능력은 기초적인 생활 기술로서 이를 통칭하여 리터러시, 별칭으로 3Rs이라고 했다. 이 별칭은 독해(Reading), 작문(wRiting), 산술(aRithmetic)의 세 단어에 공통으로 포함된 R에서 연유한다. 그리고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형성된 역사와 생활의 배경 맥락에서 리터러시, 3Rs의 교육은 공교육 체제에서 교육의 기초 중의 기초로 자리 잡았다. 예나 지금이나 초등학교 취학과 함께 시작되는 기초 교육은 바로 세 가지 기초 생활 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한다. 선생님이 교과서를 소리 내어 읽으면 아동들은 소리 내어 따라 읽는다. 아동들은 칸이 그려진 노트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반복해서 쓰고 이후 자신, 교사, 부모 등의 이름, 학교명 등등을 반복해서 쓴다. 또한 아라비아 숫자의 반복 쓰기, 간단한 덧셈과 뺄셈 등등을 한다.

교육의 기초 중의 기초가 리터러시 교육, 즉 3Rs의 학습인 것은 해당 연령이 과거보다 어려워지는 추세라 하더라도 그 단계 과정은 여전히 동일하다. 그것이 바로 리터러시, 기초적인 생활 기술이기 때문이다. 해당 연령 때 3Rs를 익히지 않으면 이후의 학습을 정상적으로 참여하는데 큰 곤란을 겪는다. 이와같이 리터러시는 기초의 생활 기술이자 기본의 학습 능력이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그 중요함을 주목, 강조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생활 기술로서 리터러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등장한 용어가 기능적 리터러시(functional literacy)다.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국제연합(UN)이 세계 2차 대전 직후부터 오랜 동안 국가경제, 국민생활이 낙후하여 개발 부흥이 절실했던 신생독립국을 대상으로 3Rs의 리터러시 교육 즉 문맹퇴치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도 기초 생활기술, 기본 학습능력인 리터러시의 뒷받침이 없이는 경제, 문화 등의 개발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https://en.unesco.org/themes/literacy>). 즉 국제연합의 지속적인 문맹퇴치 운동은 개인의 생활 역량, 국가의 경제 역량을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능력, 기술로서 리터러시를 갖춘 국민의 육성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상식의 실천이었다.

20세기 이래 우리 인류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삶의 변화는 리터러시의 변화를 요구한다. 리터러시가 생활과 학습의 기초일 뿐 아니라 삶을 구성하는 의미를 산출하고 표현하며 이해하고 소통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삶의 변화는 의미의 산출, 표현, 이해, 소통의 양상과 양식의 변화이며 따라서 의미의 산출, 표현, 이해, 소통의 도구 역시 그 변화에 합당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변화를 이끈 동력으로써 과학 기술, 특히 컴퓨터, 디지털 기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컴퓨터,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표현과 소통의 방식을 빠르게 확장시킨다. 문자 정보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된 그림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날로 확대되어 왔고 email, SNS 등을 통한 소통이 과거의 편지, 전화를 통한 소통을 압도하는 상황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의미의 표현과 소통, 정보의 생산과 유통의 급격한 변화는 일상생활의 변화가 되었다. 따라서 기초의 생활 기술, 기본의 학습 능력으로서 리터러시의

함양을 담당하는 교육, 학교는 시대에 걸맞게 리터러시를 새로이 규정하고 적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와 같은 과학 기술의 발달에서 기인하는 시대적, 사회적 변화 요구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리터러시로서 비주얼(visual) 리터러시, 디지털(digital) 리터러시 등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새로이 대두된 리터러시들은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새로운 정보 양식인 비주얼 리터러시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렇듯 다양한 새로운 리터러시의 요구, 리터러시 간의 상호작용을 주목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의 방략을 연구, 개발한 대표적 사례가 1990년대 중반의 뉴런던그룹이다. 뉴런던그룹은 멀티플(multiple)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통해 리터러시 교육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The new london group, 1996).

리터러시가 새로이 규정, 정립되어야 하는 현실적 요구는 Christie와 Misson(1998)이 영어의 상황과 교육적 과제에 대한 논의에서 잘 확인된다. 그들은 두 가지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 첫째, 영어의 사용이 영미권을 넘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속에서 의미 사용이 변형됨으로써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 사람 간의 소통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국가 간 이주가 확대됨으로써 동일 지역의 문화가 과거의 동질성이 약화되고 다양성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영어와 관련된 리터러시 개념 및 교육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언어적 차원에 한정하더라도 리터러시 그리고 리터러시 교육은 새로운 상황, 요구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이 요구되는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비판적(critical) 리터러시를 빠트릴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대 사회는 컴퓨터,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정보의 생산, 유통이 폭발적이라고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컴퓨터,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필수인 상황이다. 따라서 정보(information) 리터러시는 교육에서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가 되었다. 정보와 관련된 기초 능력, 기술은 문자, 시각, 청각, 몸짓 등의 양식인 정보를 단순히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종다량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는 모종의 사실과 가치에 관한 의식 또는 판단이 작용하고, 이는 상당한 수준의 분석과 비판의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넘치는 정보 속에서 ‘팩트체크’의 능력이 결여하면 혼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20세기 리터러시의 상황 및 변화를 축약하여 조망하여 보았다. 리터러시는 변화하여 왔고 그 변화는 과거의 전통적 리터러시 즉 3Rs의 개념으로 담아질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다양한 듯 보이는 리터러시들에는 기초의 생활기술, 기본의 학습능력이라는 성격, 조건이 관류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리터러시들은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고 그에 요구되는 평생의 학습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 기본적 기술, 능력이라는 공통의 요건을 담고 있다. 그래서 바탕이 되는 자질, 능력이라는 의미의 소양(素養)으로 언표된다고 하겠다.

2. 댄스 리터러시 논변의 경우

앞의 II장에서 논했듯이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국내의 연구 논의들을 살펴볼 때 댄스 리터러시를 정당화하는, 즉 필요와 성격을 해명하는 논변으로 다양화, 생활화, 총체성의 세 가지에 주목했다. 이 세 가지 논변은 상호 연관된 의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양화의 필요성을 반영하면서 대중화 즉 실생활에 적용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문화예술로서 무용예술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길은 무용과 관련된 총체적 자질, 능력인 댄스 리터러시 함양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이제 리터러시를 둘러싼 시대적 상황과 교육적 과제 등을 참조하여 세 가지 논변이 과연 정당화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어떤 난점은 없는지를 살펴보자.

첫째 ‘다양화 논변’이다.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논의들은 리터러시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와 그에 따른 교육의 변화에 발맞추어 댄스 리터러시의 함양을 무용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반복하여 주장한다. 이는 문화예술교육(무용)표준이 문화(무용)예술교육의 목표를 문화(무용)예술 리터러시의 함양이라고 선언, 명시한 바를 재확인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이런 방식과 「문화예술진흥법」이 정의하는 ‘문화예술’에 따르면 문화예술 관련 리터러시는 댄스(무용) 리터러시와 함께 문학 리터러시, (응용)미술 리터러시, 음악 리터러시, 연극 리터러시, 영화 리터러시, 연예(演藝) 리터러시, 국악 리터러시, 사진 리터러시, 건축 리터러시, 어문(語文) 리터러시, 출판 및 만화 리터러시 등도 성립할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목표가 (관련) 리터러시의 함양이고 모범인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영역 분야에 위의 장르들이 모두 포함되기에 것처럼 다양한 리터러시들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리터러시가 이처럼 다수 다양할 수 있고 더욱이 어떤 인간의 활동 분야에도 리터러시라는 용어의 붙임이 허용될 수 있다면 가히 리터러시들의 홍수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통상적 용어인 ‘능력’, ‘자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리터러시라는 용어로 교체할 이유가 무엇인지와 같은 소박한 의문을 떠올리게 한다.

위와 같은 소박하지만 근본적인 의구심은 댄스 리터러시의 정당화 논변이 리터러시의 다양화를 ‘분야 및 대상’의 다양화로 규정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다양화 논변’을 펼치는 논자들은 리터러시가 분야에 따라 성립,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보편적 양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만일 리터러시의 다양화를 이렇게 본다면 리터러시의 종류, 영역의 확산, 확장은 어디까지 것인가? 이러한 의구심 때문에 20세기 리터러시의 다양화에 대해 다시 살펴야 할 이유가 있고 앞의 절에서 간략하게나마 그리한 것이다.

리터러시의 다양화는 어떤 양상을 말하는 것인가? 리터러시의 다양화는 20세기 이래 삶의 (차원들이) 다양화가 가속되는 특히 의미의 파악, 생성 및 소통 방식이 다변화하고 확장되어온 시대적, 사회적 변화의 반영이다. 의미의 파악, 생성 및 소통을 위한 기초 기술이었던 전통적 문해의 리터러시와 3Rs는 여전히 유효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통상의 삶을 살고 고용의 안정과 자기 성장을 담보하기 힘든 사회, 시대가 되었고 따라서 그러한 변화 요구에 합당한 기초, 기본 교육의 과제로서 리터러시와 교육의 재정립이 이루어져 온 것이다.

리터러시의 재정립은 곧 과거와 다른 새로운 리터러시의 정립을 의미한다. 그래서 문자적 리터러시 이외에도 비주얼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더 나아가 다양한 리터러시를 관류 포괄하는 멀티플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시 등등이 등장했다. 결국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다변화 논변 즉 리터러시의 다양화는 분야 및 대상의 다양화 맥락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인간의 보편적, 공통적 삶의 측면들, 차원들이 다양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서 기초적 생활기술, 기본적 학습능력이며 의미의 파악, 생성, 소통의 능력인 리터러시에 대한 새로운 정립 및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는 핵심적 맥락을 간과한 듯한 인상을 떨치기 어렵다.

둘째 ‘생활화 논변’이다. 「무용교육표준」은 댄스 리터러시의 계발을 그 교육의 목표로 설정함에 있어서 그간의 무용교육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무용교육의 좌표를 제시한다. 그간의 무용교육은 전문예술교육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무용교육을 문화예술교육으로 대비시키는데 여기서 문화예술로서의 무용은 참여대상이 전문무용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일반대중으로 확장시키는 것임을 확인한다. 무용에 관한 제반의 활동이 대중의 삶에 밀착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용예술의 대중화, 혹은 생활화를 실현하는 핵심과제가 바로 댄스 리터러시 계발을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로서 무용의 교육이다.

이에 따르면 무용예술의 생활화에 있어서 댄스 리터러시가 중요한 이유는 그 생활화는 다수 대중이 무용과 관련된 태도, 기능, 지식 등을 포괄하는 자질, 능력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고 다수 대중이 공유하는 자질, 능력은 곧 (공유, 공통) 소양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 공유의 자질, 능력이 곧 무용소양, 댄스 리터러시이기 때문에

무용예술의 생활화는 학교와 사회에서 무용소양, 댄스 리터러시를 개발하는 접근을 통해 실현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정당화 논변은 무용예술의 생활화와 밀착시키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살폈듯이 리터러시, 더욱이 새로운 리터러시는 실생활(화)과 불가분의 관련 속에 있다. 새로운 리터러시의 등장은 인간 삶의 변화로 인한 노동, 교육 등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삶의 변화 속에서 전통적 리터러시는 한계에 봉착했다. 전통적 인쇄, 문자 기반의 문해적 리터러시는 실제의 삶에 충분히 부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해 온 삶에서 요구하는 생활 기술로서 리터러시는 전통적인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이어야 할 상황이다. 이렇듯 새로운 리터러시는 리터러시가 변화된 삶, 실제의 삶에 부합해야 한다는 상식적이고 공통적인 요구의 반영이다.

결국 리터러시와 관련된 생활화의 의미 맥락은 리터러시가 실생활에 보다 밀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라고 하겠다. 일찍이 기능적 리터러시가 주목을 받은 것도 이전의 전통적 문해의 리터러시가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생활 기술의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의 발로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댄스 리터러시를 생활화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논변은 리터러시가 생활 기술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 견해, 실천이 기능적 리터러시였으며 그 후 기능적 리터러시 또한 한계를 노출함으로써 새로운 리터러시의 탐색, 정립, 교육, 실천이 이어졌음을 바탕에 두어야 한다.

셋째 ‘총체성 논변’이다. 여기서 총체성은 통합성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댄스 리터러시는 무용(댄스)과 관련된 혹은 무용의 실행, 창작, 감상, 소통 등의 제반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자질, 능력이 통합된 개념이다. 이 논변은 일견 매우 당연하고 정당하게 보인다. 한 인간의 지식과 기술은 분절적일 수 없다. 즉 (이론적) 지식은 (실제적)기술을 통해 구현되고 반대로 (실제적) 기술은 (이론적) 지식을 반영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폴라니(Polanyi, M.)가 개인의 지식은 개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도덕적 지식을 포함하여 그가 가진 지식들은 서로 연관을 맺는 통합적 총체라는 의미에서 개인적 지식 또는 인격적 지식(personal knowledge, 표재명 외 역, 2001)이라고 파악한 바를 염두에 두면 댄스 리터러시의 통합성, 총체성 논변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무용 작품 또는 동작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창작, 감상, 소통의 행위 능력과 무관할 수 없다. 즉 한 사람의 뛰어난 무용 실행 능력은 창작 과정에서 동작을 구상하고 연결하는 데 유효하게 작용, 기여할 것이다. 또한 그 능력은 특정 작품에 포함된 동작들이 표현하는 의미들의 파악에서, 더 나아가 낱말의 동작과 전체의 구성에서 진부한 것과 독창적인 것의 구별을 포함한 미적 특성의 감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용의 실행, 창작, 감상, 소통에 관한 능력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물론 그들 간의 연관 및 영향은 폭과 깊이에서 다양한 수준과 양상일 것이고 또한 상호 비례적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실행 능력의 향상이 비례적으로 창작, 감상, 소통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리터러시 일반의 성질 역시 분절적이기보다는 통합적이다. 독해의 능력은 정보의 수집, 분석, 비판 등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역으로 정보의 수집, 분석, 비판의 능력이 향상되면 독해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인터넷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는 최소한 정보의 수집 능력과 직결될 것이다. 다양한 기호, 상징의 시각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비주얼 리터러시 역시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통되는 의미의 파악, 산출 등의 능력과 긴밀하다. 이렇듯 리터러시 자체가 통합적, 총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댄스 리터러시를 총체성으로 규정하는 논변은 타당함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리터러시의 총체성은 댄스 리터러시의 성질을 규정하는 근거로 작용할 뿐 아니라 댄스 리터러시가 다른 리터러시들과 통합되는 성질의 것임을 해명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댄스 리터러

시가 여타의 리터러시들인 기능성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시 등등과 어떻게 상호작용, 통합 작용을 하는지에 관한 해명이 확립되어야 비로소 댄스 리터러시는 단지 무용에 관한 통합적 자질,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기술, 자기계발의 기술인 리터러시로서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댄스 리터러시의 주장은 통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기초 능력이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능력이라는 리터러시의 공통적, 보편적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정당화될 것이다.

아울러 리터러시가 소양으로 번역되는바, 말 그대로 제반의 인간 활동, 특히 의미의 파악, 생성, 소통 등에 있어서 바탕(素)이 되는 기술, 능력이며 따라서 리터러시의 조건은 승수(乘數)효과¹⁾ 즉 바탕(素)이 되어서 적용하고 활용하면 할수록 추가의, 누적의, 파급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자질, 능력이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IV. 결론

이 연구는 국내 무용학, 무용교육 분야에서 2010년 전후에 등장하여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 논의를 검토하여 난점을 드러냄으로써 향후의 과제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논의들에서 댄스 리터러시의 이론적, 실천적 정당화 논변을 추출하고 무용학계 안팎에서 전개되어 온 리터러시에 관한 논의 흐름을 근거로 하여 각 논변의 정합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국내 연구 논의들은 ‘다양화’, ‘생활화’, ‘총체성’에 관한 논변을 근거로 하여 댄스 리터러시의 이론적, 실천적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 세 가지의 논변은 일견 합당한 듯 보이나 리터러시를 둘러싼 핵심의 논제와 연관시키면 간과하기 힘든 의문을 떠오르게 한다.

즉 국내의 연구 논의들에서 말하는 댄스 리터러시는 삶의 측면, 차원의 다양화에 부합하는 것인지, 대중의 실생활에 밀착 기여하는 것인지, 삶 전반에서 요구되는 생활 기술, 학습 능력에 통합되는 것인지를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물음을 남기고 있다. 이 세 가지 물음은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국내 연구 논의에서 발견할 수 있는 논변들에서 기인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댄스 리터러시에 관한 주장이 무용계 안팎에서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댄스 리터러시가 문자적(alphabetical) 리터러시, 기능적(functional) 리터러시, 비판적(critical) 리터러시, 디지털(digital) 리터러시 등과 같이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통의 능력 자질로서의 리터러시임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유경(2020). 디지털 시대 댄스 리터러시 교육 방안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8(6), 75-89.
- 김유진(2016). 댄스 리터러시 지식교육 방법.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7(2), 81-93.
- 김현정(2019). ‘댄스 리터러시’ 개념 틀에 근거한 한국무용 핵심요인의 탐색. **한국무용과학회지**, 36(2), 43-60.
- 서예원, 조은숙, 문영, 김운진(2013). 무용교육표준 개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42(3), 21-49.
- 신상미(2017). 멀티미디어 댄스 리터러시 개발의 영상인류학적 접근: 문화기술지적 무용영화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5(2), 161-182.

1) 어떤 경제변량이 다른 경제변량의 변화에 따라 바뀔 때 그 변화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연달아 변화를 불러일으켜서 마지막에 가서는 최초의 변화량의 몇 배에 이르는 변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파급관계를 분석하고 최초의 경제변량의 변화에 따라 최종적으로 빚어낸 총효과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승수이론이다(시사경제용어사전,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614>).

- 임수진(2015). 댄스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3(3), 123-145.
- 임수진, 문영(2021).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대학 교양강좌에의 적용 및 효과 탐색.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9(1), 157-172.
- 정재임(2019). 유아의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LMA 무용교육 프로그램 적용사례.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7(6), 107-122.
- 최의창(2011). 댄스 리터러시 혹은 무용소양-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 재검토. **무용역사기록학**, 21, 139-161.
- 채향순(2015). 무용교육의 가치 제고에 있어 댄스 리터러시 개념의 함의.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3(5), 163-181.
- 천혜미, 문영(2019). 댄스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통합발레교육프로그램 개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7(3), 153-166.
- 표재명, 김봉미 역(2001) / 마이클 폴라니. **개인적 지식**. 파주: 아카넷.
- 홍애령(2015). 문화예술교육 무용교육자의 전문성 요소로서 무용소양(Dance Literacy) 함양과정 탐색. **무용역사 기록학**, 37(1), 195-219.
- 한국문화예술진흥원(2011).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_무용**. 연구보고서.
- Christie, F., & Misson, R. (1998). Framing the issues in literacy education. In Frances Christie F, Misson R.(Eds.) *Literacy and Schooling* (pp. 1-17). London: Routledge.
- Dils, A. H. (2007a). Moving into dance: Dance appreciation as dance literacy. In Bresler F.(Ed.),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in Arts Education Part1* (pp. 569-580). Dordrecht: Springer.
- Dils, A. H. (2007b). Why dance literacy? *Journal of the Canadian Association for Curriculum Studies*, 5(2), 95-113.
- Hong, T. (2000). *Developing dance literacy in the postmodern: An approach to curriculum*. Paper presented at Dancing in the Millennium: An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in Washington DC July, 2000. Retrieved from <http://artsonline2.tki.org.nz/TeacherLearning/readings/danceliteracy.php>
- UNESCO (1953). *Progress of literacy in various countries*. Paris: UNESCO.
- The New London Group (1996). A pedagogy of multiliteracies: Designing social futur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66(1), 60-92.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약칭: 문화예술교육법), 시행 2017. 3. 2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1. 6. 9.

시사경제용어사전, 승수이론.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614>.

UNESCO, Literacy. <https://en.unesco.org/themes/literacy>.

Wikipedia, Literacy. <https://en.wikipedia.org/wiki/Literacy>.

* 논문접수일자 : 2021년 11월 09일

* 논문심사일자 : 2021년 11월 23일

* 게재확정일자 : 2021년 12월 02일